5강 정신승리법 혹은 노예정신

(1교시)

■ 『아Q정전』 『쿵이지』 『조리돌리기』에 나타난 패거리들의 습성

※ 학습목표
패거리들의 습성을 통해 노예정신을 이해한다.

▲ 노예는 누구인가
루쉰은 식인에 대해서보다 그들을 먹여 살리는 노예의 존재에 더욱 경악했다. 쿵이지와 아큐, 그리고 패거리들 모두 노예라고 할 수 있다. 노예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격적인 긍지나 자기 정체성이 자신의 내부에서 구성되지 못하고 자신보다 강한 것에 굴복하는 자들이다. 니체 역시 노예와 비슷한 약자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타인의 시선에 의해 결박당하거나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다른 것에 투사해서 운명 혹은 타인을 탓 하면서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들이 약자라고 말하였다.

▲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
루쉰이 아큐와 쿵이지 그리고 패거리들을 통해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천여년 동안 식인 풍습을 가능하게 만들어왔던 매커니즘이다. 식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식인이 강자이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지배받는 자는 남을 먹여 살리고 지배자는 남이 먹여 살린다고 하지 않았던가? 유감스러운 것은 이론은 이렇게 훌륭한데 지금까지 완전무결한 훌륭한 방법을 발명하지 못한 것이다. 권세 앞에 복종하려면 살지 말아야 하고, 금의옥식을 바치려면 죽지 말아야 하며, 지배를 받으려면 살지 말아야 하고, 지배자를 먹여 살리려면 죽지 말아야 한다."(『춘말한담』)

한 번 노예가 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예는 자신의 외부에 있는 사람을 주인님으로 호명해주고 외부에 있는 존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노예는 '주인'의 존재를 승인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증명한다. 지배자를 먹여 살리고 그의 권세 앞에 복종하며 그렇게 사는 삶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의 노예의 정체성이다.

▲ 노예들의 집단, 패거리
"자신은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건 두려워서 지극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로 상대의 얼굴을 몰래 훔쳐본다."(『광인일기』)

패거리들은 불안감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존재들이며 패거리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그들은 패거리를 이룸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기에 패거리 밖에 있는 공통의 적을 만들고 적개심을 확인하고 외부의 것들에게 살인행위를 가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패거리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식인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약자들이라고 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수 있다. 단지 이들은 사천년 이래로 지배받아왔던 삶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 패거리에 대한 노신의 경험 - 환등기 사건

스크린 안의 처형당하는 중국인 혁명가와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는 중국인들. 스크린 밖에서 웃고 있는 일본인들. 그 틈에 끼어서 바라보고 있는 루쉰의 위치. 루쉰은 스크린 안에서 혁명가의 죽음을 무지몽매하게 구경하고 있는 중국인들과 다르지 않았다. 즉 스크린 안에 있는 중국인이면서도 스크린 밖에서 이를 바라보는 중국인이었다. 그러면서 웃고 있는 일본인들처럼 스크린 밖에 있으면서도 일본인과는 같은 위치가 아니었다. 루쉰은 모든 것을 지켜보는 철저한 외부인이기도 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야의 경험은 루쉰으로 하여금 특이한 패거리 사상을 집요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었다.

※ 참고자료

임지현 외 『우리안의 파시즘』(삼인, 2000)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5강 정신승리법 혹은 노예정신

(2교시)

■ 『아큐정전』과 『쿵이지』에 드러난 노예의식

※ 학습목표
아큐와 쿵이지의 경우를 통해 노예의식을 이해한다

▲ 루쉰이 바라보는 노예의 역사
겉치레하기를 좋아하는 학자들이 잔뜩 늘어놓으면서 '한족의 발상시대'니, '한족의 발달시대'니, '한족의 중흥시대'니 하는 버젓한 표제를 붙여 역사를 꾸며놓는다 해도 그 호의는 감탄할 만 하나 그 용어는 너무 완곡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하다.
1. 노예가 되고 싶어도 되지못한 시대.
2. 잠시 노예로 안착한 시대
이 양자의 순환이 바로 '옛 선비'들이 말하는 이른바 '일치일란'이라는 것이다"(『등하만필』)

▲ 패거리들의 구경거리
『쿵이지』에서 패거리들은 술집에 둘러앉아 쿵이지를 안주 삼아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조리돌리기』에서 패거리들은 집요하게 구경거리를 찾아내면서 한여름 무더위와 무료함을 잊는다. 그들에게는 '구경거리'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구경거리가 있어서 구경을 한다기보다는 패거리가 구경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아Q정전』에서 아큐가 처형당하러 갈 때 길가에 있었던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많은 구경꾼들'이다. 아큐는 혁명군에 의해 처형당하기 전에 이미 이 패거리들의 시선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패거리들은 자신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자신은 다치지 않으면서 스펙타클을 보면서 잠시 위안을 받기를 바랄 뿐이다.

▲ 루쉰의 복수의 테마
루쉰의 복수는 일대일의 사적인 관계 속에서 생겨나거나 스펙터클을 만들어내는 전투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루쉰에게 복수는 패거리들에 대한 원한이라고 할 수 있다. 루쉰은 패거리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어떤 종류의 스펙타클도 제공해주지 않고 그들을 고문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수한다. 여기에는 패거리들에게 구경당하는 자가 오히려 패거리들을 구경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수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 노예의 인정욕망
노예는 자신의 주인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 노예근성은 확실히 인정욕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예들끼리는 경쟁이 심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매커니즘이 작동한다. 노예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력한 방식으로 인정욕망을 드러내려고 한다. 아큐가 높은 집 어른에게 매를 맞았다는 이유로 아큐를 존경하는 마을 사람들의 복잡한 인정욕망이 그 예이다. 존경하는 사람이 자신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그 감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정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에게 매를 맞는 것조차 부러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정욕망은 대단히 보편적인 욕망이다. 문제는 인정욕망에 집착하다보면 노예근성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행복은 자신의 주인의 표정과 눈빛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 아큐와 쿵이지의 말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정신의 승리법'을 구사하는 아큐는 문자를 터득하고 있지 못하다. 반면 쿵이지는 문자를 터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시대에 적응해서 살 수 없다. 그런데 아큐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사람들 역시 아큐를 우습게 생각한다. 아큐 역시 쿵이지와 마찬가지로 패거리의 바깥에 있는 자로 *"미장사람들의 아큐에 대한 관심은 다만 그에게 일을 부탁할 때나, 그를 두고 농담을 할 때에만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쿵이지가 이전 시대의 권력의 상징인 '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거리들의 조롱 속에서 비참한 일생을 마감한 것에 비해, 한 줄의 글도 읽을 줄 몰랐던 아큐는(그래서 조작된 자신의 범죄조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고 수박씨 모양의 동그라미를 그린 후 부끄러워했던) 스스로를 노예로 인정하지 않다가 노예임을 자각한 순간 죽음과 대면했다는 점에서 쿵이지와는 다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